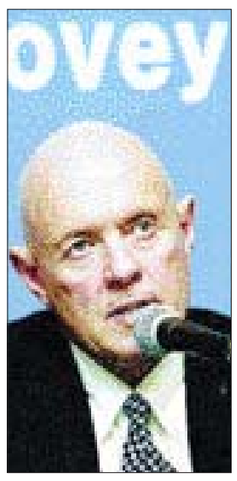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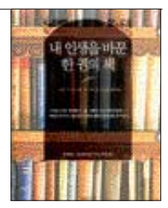
Books

책을 읽었다,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코비

잭 캔필드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잭 캔필드 외 지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화려할 것만 같은 이들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고, 지혜롭게 넘긴 질곡의 시간은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을 수도 있고, 어진 스승이나 친구 등 사람으로 역경을 헤쳐나갔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은 인생의 전환점을 책으로 맞이한 유명인들의 글을 모은 책이다. 공동 편저자 중 하나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수프'의 작가 잭 캔필드는 "책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이로운 힘은 '멈춰서서 돌아볼 기회를 준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책에는 잭 캔필드를 포함한 유명인사 48명의 경험이 담겨 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작가 존 그레이는 10대 때 접한 명상 전문가 마하리시의 '초원의 길 완성의 길'이라는 책이 스스로를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그 책에서 마하리시는 "잠재능력의 10%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만 명상을 통해 이를 확장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존 그레이는 책을 읽은 뒤 명상을 시작했고, 마하리시의 개인 비서로 9년 간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책 속의 모든 것을 체험한 뒤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는 곧 남들과 다른 자신 만의 재능을 찾아냈다. 그렇게 존 그레이는 인간관계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에게 '내 인생 한 권의 책'은 빅토르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다. 스티븐 코비는 교사 생활 초창기에 이 책을 접하고, 개인적 책임과 선택의 개념을 깨달았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스스로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나치의 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던 프랑클이 육체·정신·감정적으로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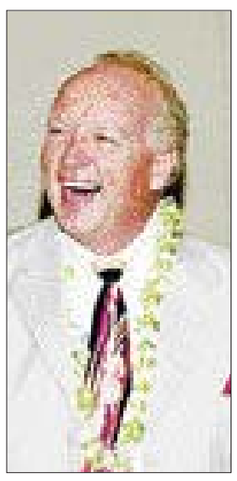
48명의 지은이 중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꼽은 사람도 있다. '이베이' 최고운영책임자 메이너드 웹은 코비가 첫 장에 쓴 "마지막 순간을 마음 속에 새긴 채 시작하라"는 말에 '꽂혔다'. 웹은 코비가 제시한 모델에 따라 실천 항목을 분류하고 직위에 따른 실천 과정에서 큰 그림에 대한 안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막스 에델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돌프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에델만은 책을 통해 히틀러가 유대인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알고 몸서리쳤다. 시력을 잃긴 했지만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에델만은 이후 '나의 투쟁'이 묘사한 유대인의 모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강연을 하며 살고 있다.

'성경',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빈곤의 종말', '싯다르타' 등 이 밖에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들이 들려주는 명저 리스트는 이들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읽는 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에서 출판된 책들이다.

〈리더스북·1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마크 빅터 한센

존 그레이

'해리 포터' 패러디 '배리 트로터' 출간

제목부터 왠지 우습다. '배리 트로터'시리즈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리 포터'의 패러디다.

'배리 트로터'를 창조한 미국의 코미디 작가 마이클 거버는 '해리 포터'의 빅 팬. 그는 영화사로부터 고소당할 것을 각오하고 글을 썼다고 말한다. 원작 못지 않게 성공을 거둔 이 패러디는 오히려 후속편을 기다리는 팬까지 생겼다.

주인공 배리 트로터는 호그워시 마법학교에 11년 째 다니는 말썽꾸러기. 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개의 뇌를 이식해 개처럼 돼버린 존 미즐리, 남자관계가 복잡한 에느민느 클링거 등 3총사가 호그워시에서 펼치는 활약은 황당하고도 기발하다. 이번에 출간된 1권('배리 트로터와 뻔뻔한 패러디')과 2권('배리 트로터와 아무도 바라지 않는 속편')에 이어 3권도 곧 출간된다.

〈북@북스·각 권 9천800원〉

춘추전국시대 편지 한통으로 이혼했다

혼인의 문화사 김원중 지음

동아시아의 혼인 문화는 각국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돼왔다. 비교문화사적 측면에서 혼인문화를 조명하는 게 정당하지만 결혼관과 남녀관의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서 읽혀지고 해석돼 온 게 사실이다.

중국 결혼관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유교중심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은 사회적 희생양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중국의 혼인문화가 남성 대 여성의 이분법으로 획일화돼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시대에 걸쳐 여성이 핍박받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료들도 있다.

춘추, 위진남북조시대 귀부인들의 불륜이나 재혼 경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여제(女帝)들의 남성 탐닉 등은 오히려 남녀가 수평·대등한 관계였다는 추정도 가능케 한다.

건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인 김원중씨가 쓴 '혼인의 문화사'는 중국 고대의 성(性), 결혼, 가족제도를 통해 동아시아 성문화의 형성 배경과 원류를 추적한 책이다. 저자가 접근하는 관점은 동아시아의 혼인관의 뿌리는 ▲인간본성의 문제 ▲음양의 균형 ▲가족의 기초라는 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대표적인 '춘추', '주역', '논어', '맹자', '예기' 등 동양고전을 폭넓게 인용한다. '춘추'에는 친영(親迎·예절로써 아내를 맞이하는 것)하지 않음을 비꼬고 있으며, '시경'의 첫머리에는 남녀간의 대등한 사랑을 노래한 시가 등장한다. 이런 문구에는 결혼은 음양의 조화로, 균형이 깨질 경우 부부도 성립할 수 없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사료인 '좌전(左傳)'에는 음란, 사통(私通), 개가(改嫁)라는 용어가 다수 등장, 자유연애가 성행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고대의 결혼 절차는 복잡했지만 이혼 수속은 비교적 간단했다. 이혼은 절혼(絶婚)으로 표현됐으며, 이혼을 원할 경우 별도 법률적 절차없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집을 떠나도록 하면 그만이었다.

책에는 돈을 주고 아내를 사는 '매매혼', 여성을 납치해 아내로 만드는 '겁탈혼', 일부다처제의 변종인 '잉첩제' 등 다양한 고대의 결혼 풍속도 소개된다.

〈휴머니스트·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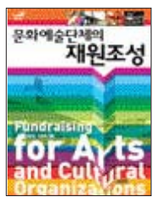
▲국어실력이 밥먹여준다-낱말편2=지난해 출간돼 국어책으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전작 '낱말편1'의 후속편.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비슷한 뜻의 낱말쌍을 추려 미묘한 의미 차이를 알려준다. 낱말 수가 늘었고 삽화도 넣었다. 〈유토피아·1만2천원〉

▲인권의 문법=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조효제 교수가 연구년을 맞아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민주화 시대를 거친 우리 사회의 인권을 되돌아봤다. 흔히 써오고 있는 인권의 개념이 심각한 이론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으며, 긴장 속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후마니타스·1만8천원〉

▲손숙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CBS 라디오의 동명 방송 중 일부를 책으로 엮은 것.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150여명 중 26명의 스토리가 실렸다. 김용택(시인), 김혜영(북한 여배우), 한비야(여행가), 엄홍길(산악인) 등이 초대됐다. 〈중원문화·9천800원〉

▲파우스트 박사(전 2권)=노벨문학상을 받은 독일 작가 토마스 만(1875~1955)의 소설. 파우스트처럼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 팔아 넘긴 천재 음악가 아드리안 레버퀸의 이야기다. 파시즘을 잉태했던 독일의 정서를 주인공의 캐릭터에 투영했다. 〈필맥·1만원〉

▲코페르니쿠스 신드롬=프랑스의 스릴러 작가 앙리 뢰벤브뤽의 소설. 이미 프랑스 국내·외에서 베스트셀러로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서 저자의 작품이 소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급성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주인공이 다니는 병원의 건물이 끔찍한 테러로 폭발하며 시작한다. 〈들녘·1만3천원〉



▲문화예술단체의 재원 조성=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을 거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연수 중인 용호성, 미국에서 예술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옥 씨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재원 조성법을 조명했다. 〈김영사·3만2천원〉

▲대멸종=영국 브리스틀대 마이클 벤턴 척추고생물학 교수가 대멸종의 진짜 원인을 파헤친다. 흔히 6천500만년 전 운석 충돌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저자는 2억5천100만년 전 페름기 말기에 있었던 대멸종이 가장 큰 규모였다고 말한다. 〈뿌리와이파리·2만8천원〉

▲쩐의 전쟁=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었던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소설로 출간됐다. 드라마의 원작인 만화의 작가 박인권씨가 소설까지 썼다. 드라마와 만화 장르의 한계 때문에 풀어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까지 모두 담아 돈과 금융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랜덤하우스·9천500원〉

▲블루리본 서베이 전국의 레스토랑 2007/08=프랑스의 미슐랭이 있다면 한국에는 블루리본이 있다.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레스토랑 전문 가이드집으로, 지난해 첫 째권에 이은 새 버전이다. 광주 55곳, 전남 250곳 등 전국의 식당 1천600여곳이 소개돼 있다. 〈클라이닉스·1천8천원〉